

| | | | |
|------|----------------------------|------|--------------|
| 배포일시 | 2011.06.23.(목) 11:00 (총6매) | 보도시점 | 즉시 |
| 담당부서 |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 담당자 | 대장 박남철 |
| | | 전화번호 | 032-761-9969 |

〈 1개월(7월 상순~하순) · 3개월 전망(7~9월) 〉

— 기온은 8월과 9월에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7월에 평년보다 많겠음 —

- (7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8~9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많겠음.

【 1개월(7월 상순~하순) 전망 요약 】

| 전국 | 평균 기온 | 강수량 |
|-------|-------------------|---------------------|
| 7월 상순 | 평년(22~25℃)과 비슷하겠음 | 평년(61~153mm)보다 많겠음 |
| 7월 중순 | 평년(23~26℃)과 비슷하겠음 | 평년(69~173mm)보다 많겠음 |
| 7월 하순 | 평년(24~27℃)보다 높겠음 | 평년(51~135mm)과 비슷하겠음 |

| 서울·인천·경기 | 평균 기온 | 강수량 |
|----------|-------------------|---------------------|
| 7월 상순 | 평년(23~24℃)과 비슷하겠음 | 평년(84~101mm)보다 많겠음 |
| 7월 중순 | 평년(23~25℃)과 비슷하겠음 | 평년(128~159mm)보다 많겠음 |
| 7월 하순 | 평년(25~26℃)보다 높겠음 | 평년(108~135mm)보다 많겠음 |

【 3개월(7~9월) 전망 요약 】

| 전국 | 평균 기온 | 강수량 |
|----|-------------------|----------------------|
| 7월 | 평년(23~26℃)과 비슷하겠음 | 평년(187~397mm)보다 많겠음 |
| 8월 | 평년(23~27℃)보다 높겠음 | 평년(193~367mm)과 비슷하겠음 |
| 9월 | 평년(18~24℃)보다 높겠음 | 평년(132~244mm)과 비슷하겠음 |

| 서울·인천·경기 | 평균 기온 | 강수량 |
|----------|-------------------|----------------------|
| 7월 | 평년(24~25℃)과 비슷하겠음 | 평년(320~395mm)보다 많겠음 |
| 8월 | 평년(25~26℃)보다 높겠음 | 평년(286~364mm)과 비슷하겠음 |
| 9월 | 평년(20~21℃)보다 높겠음 | 평년(154~169mm)과 비슷하겠음 |

1. 1개월 · 3개월 날씨 전망

-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 상태) 평년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수면 온도 편차 : 5월 -0.3℃, 최근(6월 둘째 주)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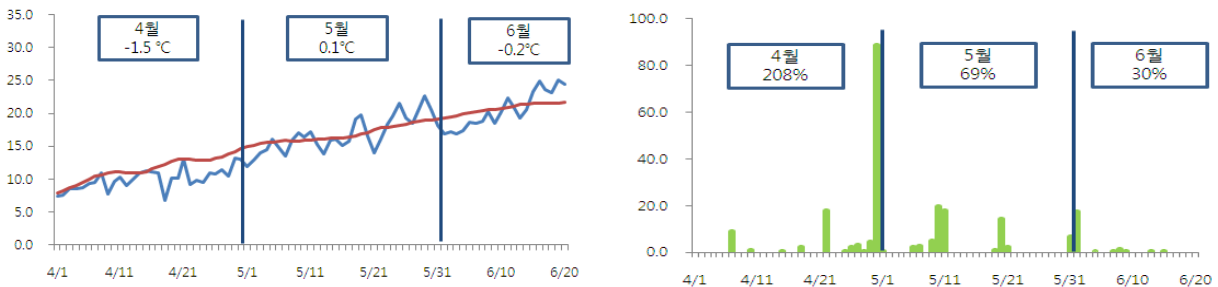
- (7월) 상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중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일시적으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어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으며 열대야나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덥겠으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9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2. 최근 날씨 동향

- (4월)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체로 따뜻하였고, 후반에는 발달한 상층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정체하면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쌀쌀하였으며 그 주변을 따라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황사는 1일과 15~16일 두 차례 나타났음.
- (5월) 상순과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운 날이 많았으나, 하순에는 일시적으로 발달된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동풍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동쪽지방으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9~12일(4일)에는 기압골에 동반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20~23일(4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황사는 1~4일, 12~13일, 14일 세 차례 나타났음.

- (6월 1~20일)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많았으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1.04.01 ~ 06.20)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7~9월)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사례(7~9월)

【 알림 】

- 1개월 및 3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 소속기관(각 지방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1년 7월 4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3개월 전망은 2011년 7월 22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상청 기상자원과(02-2181-0887)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 기압계

- (7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영향을 미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림.
- (8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만주지방으로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강수가 나타남.
- (9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서서히 약해져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나,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늦게 약화되거나 다시 강화될 때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기도 함.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해 비가 내림.

○ 바람

- 전반적으로 7~8월까지의 남서풍이, 9월에는 서풍계열(남서~북서풍)이 우세함.

○ 태풍

- 일반적으로 연평균 23개의 태풍이 발생하며 최근 10년 7~9월에는 13개가 발생하여 2.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7월:0.8개, 8월:1.0개, 9월:0.4개)을 미침.

○ 폭염과 열대야

- 폭염과 열대야는 각각 9.2일, 6.6일 발생하며, 8월에 가장 많이 나타남.

※ 폭염 : 7월 3.3일, 8월 5.6일, 9월 0.3일, 열대야 : 7월 2.5일, 8월 3.8일, 9월 0.2일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 평균기온 : 23.6℃ (7월 24.5℃, 8월 25.3℃, 9월 21.1℃)
- 평균 강수량 : 783.2mm (7월 335.3mm, 8월 280.1mm, 9월 167.8mm)

○ 고온현상

- (2010년 7월~9월 중순) 7~9월 상순은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9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지속되어, 총 82일 중 75일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음. 폭염에 따른 응급진료 환자 455명 중 8명이 사망하고,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상품의 매출이 대폭 신장(전년 동기 대비 에어컨 120%, 선풍기 75% 매출 증가)되고, 해수욕장이 장기간 호황을 이루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컸음.
- (2008년 7월 상순~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발해만 부근까지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남부 지방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4.4일, 10년 평균대비 +3.3일)과 열대야(2.9일, 10년 평균대비 +1.7일)가 자주 발생하였음. 국토대장정을 하던 여대생 1명이 숨지고, 강릉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닭이 집단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8년 9월 중순) 이동성고기압과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8℃, 최고기온은 3.5℃ 높았음. 늦더위가 이어지며, 여름추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모기의 개체수도 2.5배나 증가하였음. 쌀·배 등 아열대성 작물이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었으나, 이로 인해 농작물 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8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한까지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총 31일 중 23일이 30℃ 이상을 기록하였음. 7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전국평균기온이 32℃를 넘었으며, 내륙에서는 36~38℃까지 기온이 상승하였음. 더위로 농산물의 출하량이 줄어들어 채소값이 올랐으며, 가축의 폐사가 속출하였음.
- (2004년 7월 30~31일) 7월 30일에는 밀양에서 38.5℃를 기록하며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4.4℃(평년편차 +3.4℃)로 7월의 전국 평균 최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음. 7월 중순 후반부터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전력 소비 기록을 경신하였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간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음.

○ 집중 호우

- (2010년 9월 21일)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과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좁고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서울은 일강수량 259.5mm, 1시간 최대강수 75.0mm를 기록(1908년 이후 역대 2위)하였음. 추석연휴 첫날이었던 이날, 광화문을 포함한 도심 곳곳이 침수되었으며, 1명이 사망하고, 1만 4,000여 가구가 침수되었음.
- (2009년 7월 7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강수량 2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음. 부산에서는 일강수량 310.0mm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1시간 강수량 73.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였음.

○ 태풍

- (2006년 7월 9~29일)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62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1조 8천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음. 특히, 9~10일에는 장마기간 중 태풍 ‘에위니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진주 286.5mm, 창원 270.5mm, 여수 253.5mm)가 내렸음.
- (2003년 9월 12~13일) 태풍 ‘매미’는 경남 사천시 부근 해안에 상륙하여 울진 부근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할 때까지 심야시간에 약 7시간 가량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전국적으로 4조 7,810억원의 재산피해와 132명(사망 119명, 실종 13명, 부상 3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상륙시점이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해안에서 높은 해일이 발생하였고, 강한바람(제주와 고산 각각 60m/s, 전국 관측 이래 최대순간풍속 2위)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상륙할 때의 해면기압은 954hPa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두 번째로 기압이 낮았음(1위 1959년 태풍 ‘사라’, 부산 951.5hPa).
- (2002년 8월 30~9월 1일) 태풍 ‘루사’가 남해안에 상륙한 후 내륙을 통과하여 강원도 속초부근에서 소멸되었음.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고산 56.7m/s, 전국 관측 이래 최대순간풍속 5위)과 함께 많은 비(강릉 870.5mm, 전국 관측 이래 일 강수량 1위)가 내렸음. 246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5조 1,479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저온현상

- (2003년 7~8월) 강하게 발달한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평년보다 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잦아, 총 62일 중 55일이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음. 전국 평균기온은 23.2℃로 가장 낮았고, 강수일수는 37.2일로 가장 많은 해였음.